

Nick Schleicher (닉 슬라이커)

슬라이커는 영롱하고 촉각적 물질성을 지닌 색면적 추상회화를 중심으로, 한편 회화와 사물이 교차하는 오브제 작업을 한다. 그의 작업은 미니멀리스트의 명료성과 진지함에서 비켜서서 위트를 더하여 보다 정서적이며 인간적인 것을 추구한다. 살펴보면, 작가는 종종 그림의 엄격한 사각형 틀에서 벗어나 원, 반원, 아치형 등 다양한 형태의 셰이프트 캔버스를 사용하고, 제한된 틀의 경계를 벗어난 안료의 불규칙한 윤곽이 그림의 가장자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하여 회화는 프레임 너머의 공간으로 확장된다. 아치형 틀의 형태가 무정형의 구름인 듯, 성당의 아치형 창문인 듯 그림은 관객을 둘러싼 현실 공간에 개입한다.

화면 속 겹쳐진 색상들은 서로 스며들 듯하지만 때로는 얼룩인 듯 모호하게 아른거리며 각기 자유로운 레이어를 보여준다. 작가는 회화의 지지체로서의 캔버스와 표면, 안료의 물성과 적용방식을 오래 탐구해 왔다. 특히 형광안료나 광택이 나는 젤 등 물성이 강한 매체로 아주 얇은 레이어를 만들며, 화면이 평평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층을 쌓아 나간다. 정확한 의도와 자유롭고 즉흥적인 구성이 함께 작용하여 각 레이어가 투명하거나 불투명하게 불규칙적으로 겹치고, 여기에 매끈거리고 반짝이는 안료의 물성이 더해지면서 화면에는 모호한 환영적 공간감마저 생긴다. 그것은 색면회화가 지향하는 순수한 색채의 표면을 지나 촉각적 회화의 물질성과 함께 사이키델릭한 색채 감성을 지닌다. 이렇게 슬라이커의 작업은 색면추상의 비물질적 특성을 물질로 갱신한다. 더욱이 형광안료와 젤의 선명하고 높은 채도의 화려한 색감과 인공적인 물성은 대중문화에서 오는 생동감과 시각적 유희성이 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엄숙하고도 가볍다.

그의 작업에는 모로코 전통 양식의 베르베르 카펫, 애니메이션 심슨가족이나 영화 케이프 피어(Cape Fear) 등 영상 장면 속 색상, 혹은 어렸을 적 가지고 놀았던 끈끈이 장난감(슬라임)의 높은 채도의 색상과 끈적이는 물성 등 자신에게 의미 있었던 것들이 투영되어 있다. 곧 기억 속 재현적 장면은 추상의 형태로 걸러지고 색상과 질감으로 번역되면서, 모호하고 진기한 무언가로 바뀌어 나타난다. 슬라이커의 흔들리는 색층의 회화는 보편적 질서나 영원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추상이기보다, 오히려 그러한 영원성이나 항구적인 것의 질문일 것이다. 불완전하고 유한한 삶, 그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신비하고도 유머러스하게 투영하고 있다. -Gallery J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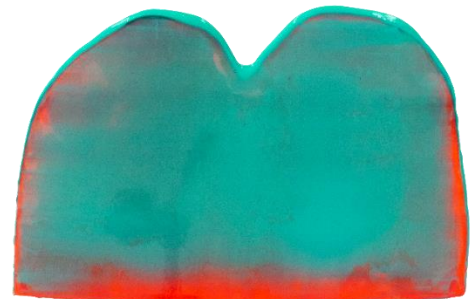
Nick Schleicher

닉 슬라이커는 2011년 시카고미술대학(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회화과를 졸업했다. 그의 작품은 색면추상에서부터 조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가장 최근의 작업은 오브제, 그림, 조각, 그리고 보이드 Void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의 셰이프트캔버스 작업들은 하드라인 추상화의 명확함, 분석적인 차가움보다 부드럽고 인간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등 독특한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확립하여 그 예술적 역량이 주목받으면서 나날이 인기를 더하고 있다.

2011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 BFA

개인전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21 LIMBOOO, Houska Gallery, St. Louis, MO
- 2020 SLIME, Monaco, Saint Louis, MO
Increasingly All the Time, Houska Gallery, St. Louis, MO
Boss Skull, Rick Banger Gallery
- 2017 .skin, PLAQUE at G-CADD, Granite City, IL
6 paintings 9 sculptures, Grease 3, St. Louis, MO
- 2015 Synthesizer, Hoffman LaChance Contemporary, St. Louis, MO
Vibration Process, The Millitzer Gallery, St. Louis, MO
- 2014 Clean Lines, Third Degree, St. Louis, MO
- 2013 Nick Schleicher, Fifty 09 Gallery, St. Louis, MO
Nick Schleicher, SPACE, St. Louis, MO



Nick Schleicher, CRA-MLA, 2022, Acrylic, gel gloss, glazing medium, and iridescent pigment on linen wrapped panel, 27.9x40.6cm